

## 디딤돌이 된 2022년 여름 인턴십

### 권예원-포스코 아메리카

대학생활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코참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코참을 통해 이번 여름 포스코 아메리카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고 너무나 값진 경험을 했다. 포스코 아메리카는 포스코의 미주 해외법인으로 미주지역의 철강사업 활동을 총괄하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포스코 아메리카에 있는 동안 HR팀과 기획투자팀 두 부서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HR 팀에서는 전반적인 회사의 운영 흐름을 배울 수 있었다. 인사 관리, 기획, 총무 등 원활한 사무실 운영을 위해 각종 물품, 시스템, 사업 등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작은 업무부터 시작하여 개인 프로젝트까지 맡게 되면서 사업이 어떻게 기획되고 처리되는지, 또 적용되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현재 포스코 아메리카 홈페이지에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업데이트하고 현재 인력난을 고려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서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지만 꾸준히 개선해야할 부분과 잘한 부분의 대해 피드백을 받아 꼼꼼히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발전시키면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기획투자팀에서는 내 전공인 MIS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 같다. 주 업무는 시장조사와 데이터 정리였는데, 데이터와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들 중에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캐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또한, 새로운 정보에 계속 노출되어지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분석하는 일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봐주시고 세세한 팁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업무의 특성상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부서분들의 합을 보면서 팀워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일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포스코 아메리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고 또 더 효율적이게 변형해 사용하는 모습들을 직관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 종종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무에서 경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었고,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더 뚜렷이 찾은 것 같다. 이번 인턴십은 나에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내가 하고싶은 일에 대해 확신과 열정이 생겼다.